

# 러시아 발전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서의 마피아 연구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장대성

---

I. 서론	III. 체제이행기 마피아의 영향
- 문제제기 및 목적	- 범죄적 측면
- 연구 방법 및 범위	- 지하경제
II. 러시아 마피아의 개념과 성장 동인	- 부패
- 마피아의 개념	- 대응 방안
- 마피아의 역사	IV. 결론
- 마피아의 성장동인	

---

## I. 서론

### 1. 문제제기 및 목적

소련이 붕괴하면서 시작된 러시아의 체제이행은 10여 년이 흐른 지금 원래 추구했던 목표에 얼마나 다가가고 있는가? 충격요법을 통한 급진적인 자본주의로의 진입과 사적 부분의 창출을 통한 자유화와 사유화는 그 과정이 대부분 진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문명화된 서구식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아직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슈페터가 주장했던 ‘창조적 파괴’는 나타나지 않았고, 오직 ‘파괴’만이 남았다는 극단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또한 1990년대의 ‘Wild East’가 끝나고 안정된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정부관료와 금융 관련 사업자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다수의 납치와 살인 등으로 깨어져 버린 지 오래다.<sup>1</sup> 푸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안정화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던 러시아가 왜 다시 아픈 과거를 반복하는가? 어떤 구조적 제약 요인이 러시아를 다시 1990년대로 되돌리려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 러시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노멘클라투라 사유화’

---

<sup>1</sup> Back to The Future, Newsweek, Oct 7, 2002. 기사에 의하면 2002년 한 해에 러시아에서 손꼽히는 사업가인 Sergey Kukurark 10월 12일 납치되었으며, 공항세관책임자가 10월 13일 살해되었고, 두마의원 Vladimir Golovlyov가 6월 21일 암살되었고, 8월 20일에는 모스크바철도의 부책임자가 총상을 입었으며, 8월 7일에는 스몰렌스크의 부지사가 암살되었다.

때문일 수도 있고,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불안정한 법체계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수많은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사회전반에 걸쳐서 범죄적이며 불법적인 환경을 확산시키는 러시아 고유의 마피아(Mafiya)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sup>2</sup> 왜냐하면 러시아의 마피아는 소련이 붕괴되기 이전부터 그들의 세력을 키워왔으며, 소련이 붕괴된 후에는 관료들과의 유착을 통해서 사회 및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오히려 러시아의 ‘보이지 않는’ 주도세력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 2. 연구 방법 및 범위

현재까지 러시아 마피야를 설명하기 위한 일반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피야가 서방의 마피아라는 일반적인 범죄조직과 많은 차이점을 보임으로써 일반적인 범죄이론에 의해서는 설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현재까지 얻어진 그러나 과편화된 성과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마피야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 및 그 형성 배경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다음으로 마피야가 러시아의 체제이행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러시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마피야현상의 극복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 II. 러시아 마피야의 개념과 성장 동인

## 1. 러시아 마피야의 개념

### 1) 마피야의 일반적인 개념

조직범죄에 관해서 국제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개념이 마피아이다. 마피아라는 용어는 19세 후반, 특히 이탈리아의 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주로 이탈리아 시실리 출신들로 이루어진 고도의 위계적인 범죄집단을 칭하면서 사용되었다. 유래에 관한 많은 이견이 있지만 통설은 18~19세기 동안 시실리가 무법상태에 있을 때 강도로부터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 부채지주들이 만든 소규모 사병조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유력하다.

서구에서 마피아라는 용어는 가끔 조직범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조직범죄보다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앤더슨은 서구의 마피아에

---

<sup>2</sup> 용어 사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서방의 마피아는 Mafia로 표기되나, 러시아의 고유성을 설명하기 위한 마피야는 Mafiya로 표기된다. Stephen Handelman, "The Russian 'Mafiya,'" *Foreign Affairs*, Vol. 73, No. 2, p. 84

대한 개념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첫째, 합법적인 법집행과 형사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둘째, 경찰과 협력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기구를 부패시킨다. 셋째, 일반시민과 정당한 사업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보호기능을 마비시킨다. 넷째, 합법적인 사법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 내에서 법집행과 형사재판 같은 정부기능을 수행한다. 다섯째, 수익성 있는 공식경제에서 기업연합과 같은 독점체를 구성하거나, 마피아가 아닌 경제인들과도 협력한다.<sup>3</sup>

## 2) 러시아 마피아의 정의

러시아에서 마피아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구소련의 검찰관들이 1970년대와 1980년 대에 중앙 및 지방부처에 내재해 있는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지칭 하면서 부터이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 공산당 지도자가 면화 생산 보고서를 위조하여 거금을 횡령한 소위 면화사건이 그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부터 러시아 인들은 마피아라는 용어를 지역, 중앙관료가 자행하는 썩은 네트워크에 빗대 쓰기 되었다.<sup>4</sup>

현재 러시아에서 쓰이는 마피아는 정통적인 의미의 마피아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그것은 범죄조직 및 부패와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체제이행기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신흥 자본가 집단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신흥 자본가 집단은 그들 스스로가 ‘새로운 러시아인 Novye Russkye’로 불려지길 원하지만 러시아인들은 이들에 대해 “범죄자들과의 경계선상에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부정적 의미가 포함된 “마피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이들이 첫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신흥자본가 집단의 자본주의적 행태가 기존에 배워왔던 사회주의적 시각에서는 못마땅하기 때문이고 둘째, 이들이 소비에트 체제의 노멘클라투라 집단으로서 가지고 있던 특권을 이용해 재빠르게 자본가로 변신 한데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셋째로는 실제로 이들이 적든 많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범죄조직과 결탁하여 공생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마피아라고 부르고 있다.<sup>5</sup>

위와 같은 복합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마피아의 정의로는 갈리오티에 의하면 범죄의 측면에서 잔인하고 강력한 행동규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에 충성을 맹세하고, 러시아 내의 정치 및 경제엘리트와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조직을 말한다.<sup>6</sup> 반면 코나니킨과 그라체바는 러시아에서의 마피아 현상을 ‘Mafiocracy’라고

<sup>3</sup> Annelise Anderson, “The Red Mafia: A Legacy of Communism,” in Edward P. Lazear, ed., *Economic Transition in Eastern Europe and Russia: Realities of Reform* (Stanford, Calif: The Hoover Institution Press, 1995), p. 341.

<sup>4</sup> Stephen Handelman, *Commrade Criminal: Russia's New Mafiya*(New Haven: Yale Univ Press, 1995), p. 86.

<sup>5</sup> 조한범 외, “러시아의 계층변화와 체제이행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학적 분석- 신흥자본가 집단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Vol. 22, No. 4, p.228.

<sup>6</sup> Mark Galeotti, “Mafia: organized crime in Russia,” *Jane's Intelligence Review*, Special Repor, No. 10, 1996, pp. 3~4.

지적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러시아에서 발전된 사회체제로서 첫째, 강력한 소수 범죄조직이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둘째, 범죄조직과 부패한 정부 및 법집행기구가 결탁되어 있으며 셋째, 민주적 제도 및 법체계가 마련되어있지 않고 넷째, 시장 메커니즘이 억제되어 있는 체제라고 설명하고 있다.<sup>7</sup>

러시아의 마피아는 위에서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마피야를 범죄적 특성에 더해서 사회 및 문화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러시아인들이 비도덕적인 측면에서 사용하는 마피야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2. 마피야의 역사<sup>8</sup>

러시아에서 마피야 현상의 기원은 19세기 말엽 제정러시아의 국가적 통제능력이 약화되면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후 10월 혁명을 거치면서 소비에트체제가 확립되면서 마피야 현상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브레즈네프 말기에 이르러 소련 경제의 낙후성의 심화와 함께 지하경제의 확대는 마피야가 다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러시아 마피야는 소련 공산당 지도부의 부패와 결탁하면서 세력을 점점 구축해 나갔으며, 소련 붕괴 이후 전국적인 규모와 조직으로 거대화되었다.<sup>9</sup>

러시아에서 범죄, 특히 조직범죄는 짜르 시대부터 활발한 모습을 보여왔다. 단순한 도둑 수준에 머무르던 범죄집단은 18세기를 거치는 동안 조직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조직이 강화되어가던 러시아의 범죄집단은 10월 혁명 이후 침체기에 접어들게 된다. 1960년대 소련에서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범죄 조직들은 회색시장 및 암시장 경제에서 비공식적인 중간 상인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공장주나 관료들과 암묵적인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각종 재화나 국가재산을 사적으로 유통시켰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소련 경제는 권력자에 대한 뇌물

---

<sup>7</sup> Alexandre Konanykhine, Elena Gratcheva, Mafiocracy in Russia(<http://www.Konanykhine.com/mafocracy.htm>)

<sup>8</sup> 러시아 마피야의 역사에 관한 것은 다음을 참조로 작성되었음. Stephen Handelman, *Commrade Criminal: Russia's New Mafiya*(New Haven: Yale Univ Press, 1995), Annelise Anderson, "The Red Mafia: A Legacy of Communism," in Edward p. Lazear, ed, *Economic Transition in Eastern Europe and Russia: Realities of Reform* (Stanford, Calif.: The Hoover Institution Press, 1995), Mark Tomass, "Mafianomics: How Did Mob Entrepreneurs Infiltrate and Dominate the Russian Economy?"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32, No. 2, 1998

<sup>9</sup> Abraham Abramovsky, "Prosecuting the "Russian Mafia": Recent Russian Legislation and Increased Bilateral Cooperation May Provide the Means,"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7, No. 1, 1996, pp. 193~194

증여와 불법시장의 확장으로 특징 지을 수 있고, 그 권력은 공산당 수중에 있었으며, 이들은 부의 축적을 위해서 마피아와 연계하게 되었다.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 이후 소유권의 다양한 정책과 협업 기업의 출현으로 마피아는 더욱 활성화되어 소련 특유의 이중가격 체제를 이용해 부를 축적해 나갔으며, 사유화가 도입되면서 마피아와 노멘클라투라는 협력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이런 환경에서 사유화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소수 기득권층과 마피아의 부를 축적하는 데 이용되었으며, 이 시기부터 세력다툼 등을 위한 범죄가 폭증하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마피아는 새롭게 태어난 러시아에서 과거의 특권계층과 함께 ‘나라의 주인’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 3. 마피아의 성장 동인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마피야를 포함하는 조직범죄의 발생 및 성장의 원인에 관한 이론은 Stergios Skaperdas에 의해서 제시되었다.<sup>10</sup> 그는 권력공백의 상태를 어떻게 조직범죄집단이 이용하는가를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들고 있다. 첫째, 지리적 원격성이 권력공백을 형성할 수 있으며, 조직범죄는 이런 지형적 조건을 이용해서 그들만의 ‘보호’를 무기로 성장해 나간다. 둘째, 정부에 의한 특정 상품 및 특정분야에서의 금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국가가 어떤 특정 상품에 제한을 가하면 그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지하경제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서 조직범죄가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다. 셋째, 주요한 정치적 변화 또한 조직범죄의 성장에 한 원인이 된다. 이를 러시아의 상화에 적용해보면 지리적 원격성은 마피아의 발생 및 성장을 큰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 물론 지역차원에서 지역엘리트와 범죄집단 및 준 범죄집단 간의 연계가 중앙-지방관계를 훼손시켰고, 경제의 활성화를 방해한 하나의 요소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마피아 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설명력이 떨어지는 다른 요인은 광활한 영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국가권력의 밖에 존재할 수 있는 곳이 드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가 주는 시사점은 구소련 붕괴 후 지방에 대한 통치가 상당히 약화되고, 중앙과 지방이 갈등 양상을 빚으면서 지방에서 토착 마피아의 성장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에 의한 특정 상품 및 분야에 있어서의 금지는 고르바초프시기에 있었던 술에 관한 제약이 마피아에게 있어서 지하경제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큰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설명력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주요한 정치적 변화는 마피아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과거 지하경

---

<sup>10</sup> Stergios Skaperdas, “The political economy of organized crime: providing protection when the state does not,” *Economics of Governance*, Vol. 2, 2001

제와 연관해서 성장하던 마피아는 러시아 사회의 전면에서 부상한 것은 구소련의 붕괴와 새로운 국가 러시아의 탄생과 그 시기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정치적 변화와 연관해서 마피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강력한 소비에트 국가기구와 명령경제체제가 붕괴되면서 시장경제가 급진적으로 도입되고 중앙집권적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면서부터이다.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생산과 유통 등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권위가 무너진 무정부적 상태 속에서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는 이를 마피아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정치 및 법률적 측면에서 국가 강제기구의 약화와 법제도의 미비가 마피아 성장의 한 원인이 되었다. 소련 붕괴 후 사회격변기에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해야 하는 경찰 등 강제기구들이 약화되면서, 통제에 공백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또한 국가 강제기구가 내무부, 보안부, 검찰, 경찰 등으로 복잡하게 분할되어 있던 것도 마피아 성장에 대처해야 하는 각 부서의 효율성의 저하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뇌물수수 및 마피아와 내통하고 있는 내부조직의 부패도 마피아 성장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법제도의 미비라는 측면에서 러시아의 헌법은 국가가 탄생한지 2년이다 되어서야 제대로 마련되었다. 최고법령인 헌법이 이와 같은 상태일 때 그 하위 법령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당의 명령과 지시가 모든 것을 규율 하던 소련의 경험은 새로운 환경을 규율할 수 있는 법 제정에 오히려 방해물이 되었다. 때문에 여러 부문에서 법의 미비와 맹점이 드러났다. 수많은 국유재산의 사유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측하여 적절한 대응 법규를 마련해야 했으나,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러시아에서 마피아 성장의 큰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적 모순에 의한 지하경제의 확산과 사유화의 부작용이 마피아 성장에 큰 요인이 되었다. 구소련 시기에 발생했던 물품부족 등 수많은 경제적 문제점들은 지하경제를 통해서 유지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마피아는 지하경제의 주역으로 활동하였으며, 관료와 결탁을 맺고 그들의 이익을 늘려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탄생한 러시아에서의 사유화는 과거 노멘클라투라 등의 권력층과 유착관계에 있던 마피아들이 급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것이다.

사회, 문화적인 환경 또한 마피아 성장에 기여하였다. 가치관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서방에서 불법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들을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못하였다.<sup>11</sup>서방의 경우, 마피아 조직은 정치적 효율성과 정통성에 기반한 국가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도덕이 마피아의 만연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의 전반적 사회현상인 마피아 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친 도

---

<sup>11</sup>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Russian Organized Crime* (Washington: CSIS, 1997), p. 27.

덕적 공백과 불법적 이익 추구에 대한 기대감에서 더욱 성장 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외부의 사회통제력이 기능하지 못할 때 내부의 통제력에 의한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러나 바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실질적 기반이나 그 내적 완결성을 갖지 못하고 이제 생성되어 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사회의 무질서는 가중되었고, 결과적으로 마피아 성장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러시아의 정책입자들은 이런 측면에서 시장경제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사회가 성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격요법을 통한 무리한 시도를 행함으로써 러시아에서 마피아가 확산되는 하나의 요인을 제공한 것이다.<sup>12</sup>

### Ⅲ. 체제이행기 마피아의 영향

#### 1. 범죄적 측면

구소련의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는 정치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마피아의 증가에 따른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난 것이 각종 범죄의 급증을 들 수 있다. 러시아의 범죄율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급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1989년과 1990년 사이에 폭력범죄와 경제범죄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범죄형태들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증가를 설명하는 이론은 범죄인 개인에서 범죄발생을 설명하는 견해와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나 문제점 등에서 그 증가원인을 찾는 두 견해가 있다. 러시아에서의 대대적인 정치변화와 범죄의 증가가 시간 및 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범죄발생이 개인차원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국가의 강제기구의 공백에 따른 마피아의 급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러시아에서 마피아에 의한 범죄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마피아가 지난 6년 동안 저지른 범죄가 76.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중범죄 역시 88%가 증가 했다. 또한 마피아는 현재 경제 영역에 깊숙히 침투해 있고 해외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에너지와 전략물자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소수민족 중심의 마피아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sup>13</sup>

마피아가 행하는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약, 청부살인, 무기밀매, 보호, 돈 세탁, 각종 경제범죄, 밀수 및 매춘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

<sup>12</sup> Stephen Handelman, op. cit, p. 89

<sup>13</sup> The Moscow Times, Mar 1, 2002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약과 관련해서 러시아는 소련의 붕괴를 계기로 훌륭한 마약시장이자 중간 유통기지로 부상했다. 마피아는 국내의 마약, 중앙아시아산 아편과 라틴아메리카산 코카인, 합성 마약을 포함해서 다양한 불법약제를 생산하고 교역한다. 또한 마피아는 원활한 마약 공급을 위해서 콜롬비아 조직과 협력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러시아 마피아의 마약관련 범죄는 큰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내무성의 발표에 의하면 2002년 10월 30일 기준으로 등록된 마약중독자는 317,200명에 달하고,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마약중독자 수가 3백만에서 3백50만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14</sup> 또한 2002년 상반기에 5.5%의 마약중독자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마약복용과 중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곧바로 그 사회가 정상적인 방향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러시아의 마피아는 사회분위기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늘려가고 있다.

둘째, 불법무기와 관련해서 현재 러시아에서는 구식권총에서부터 현대식 중화기까지 약 1,500,000개의 불법무기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The Moscow Times의 보도에 의하면 올해 러시아에서 지난해보다 37%증가한 30만 명의 불법무기를 압수하였으며 총기사용범죄도 2만 4천 여 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가장 큰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핵 물질의 밀 거래에 관한 것이다. 핵 관련 종사자들은 경제적 필요성 내지 협박 등으로 인해 핵 물질을 범죄조직에 넘기는 상황에 까지 처하게 되었다. 일례로 1996년 1월 소비에트 가바니(Gavani)에서 고농축 우라늄 7kg이 도난 당했다. 또 최근 미국 스탠퍼드대학 연구팀은 정부 소식통과 자료집, 과학전문지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방호조치가 허술한 구소련의 핵 시설에서 지난 10년간 발생한 우라늄 및 플루토늄 도난 사건이 830건에 달했으며, 무기로 사용 가능할 정도로 위험성이 높은 핵 물질 40여kg이 도난 당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회수되었지만, 그루지야의 연구용 원자로에서 사라진 2kg 가량의 우라늄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힌 적이 있다.<sup>15</sup>

셋째, 청부살인 및 경제적 문제와 연관된 살인도 심각한 수준이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줄어드는 듯 했던 관료 및 기업가에 대한 청부살인이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강력한 국가를 지향하는 푸틴 정권의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WHO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러시아에서 살해된 사람은 34,000명에 달하고, 이 중에서 40%가량이 경제적 문제와 연관해서 살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6</sup>

넷째, 크리샤로 알려진 마피아에 의한 ‘보호’를 들 수 있다. 크리샤는 사업체나 정부활동이 필요로 할 경우, 보호와 후원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이나 개체를 일컫

<sup>14</sup> Interfax News Agency, Oct 30, 2002

<sup>15</sup> New York Times, Feb 11, 2002

<sup>16</sup> The Moscow Times, Oct 9, 2002



는다. 개인과 사업체들은 사용료 지불에 대한 대가로 끄리샤로부터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런 서비스는 신변보호나 사업 보호, 경쟁 상대에 대한 위협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끄리샤는 대부분 정부가 사적 영역에 대해서 충분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데 체제이행기 국가강제기구와 법적인 미비가 이런 ‘보호’명목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끄리샤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요소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금융 및 신용 기관이나 은행과 연계되어 있다. 둘째, 정부구조에 깊숙히 침투하여 있다. 셋째, 군 또는 심지어 정부 자체가 끄리샤를 제공한다.<sup>17</sup>

다섯째, 돈세탁 또한 마피아의 주요 활동영역이다. 러시아는 ‘검은 돈’ 세탁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다. 서방에서 범죄조직 등이 돈세탁을 하려면 당국의 엄중한 감시망을 뚫어야 하고, 각종 금융기관의 의심을 받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서방과는 달리 러시아는 미 발달된 금융시스템과 부정부패로 인해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에 검은 돈을 손쉽게 세탁할 수 있다. 이는 곧바로 러시아가 발전을 위해서 축적해야 할 내부 자본이 국외로 유출됨으로써 국가 발전에 심대한 장애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매춘과 관련해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인 매춘에 대해 국제사회는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 소련이 붕괴하면서 자본주의가 도입되고 자유가 확산되면서 매춘은 마피아와 연계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마피아의 통제를 받고 있는 러시아 매춘 여성은 러시아 국내뿐만 아니라 유고슬라비아를 비롯한 동유럽과 한국, 터키, 이스라엘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sup>18</sup>

이런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경제적 자율성의 미비 및 과도한 개입, 경제 왜곡이 착취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서 범죄가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자유화가 범죄율 하락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과 다른 하나는 배버적 국가관에 입각해서 범죄증가는 국가의 강제기구 및 법제도의 실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 있다.<sup>19</sup> 현재의 러시아 상황으로 볼 때 ‘충격요법’은 명령에 의한 법의 시행과 비상 상황의 연속, 특별한 권력의 발생, 행정부 권력의 강화 등으로 인해서 법에 의한 통치가 약화되고 유대에 의한 부의 획득이 범죄와 마피아의 증가를 불러온 것을 봤을 때 이에 대한 처방은 후자 즉, ‘정상적인’ 국가의 건설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지하경제<sup>20</sup>

<sup>17</sup>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op. cit, p. 30

<sup>18</sup> 러시아의 매춘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un.org/esa>를 참조

<sup>19</sup> Mitchell Orenstein, “Lawlessness from Above and Below: Economic Radicalism and Political Institution,”

<sup>20</sup>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는 black market, shadow economy, unofficial economy, informal market 등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 의미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국가에서나 지하경제는 존재해 왔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측정의 곤란함까지 감안한다면 지하경제가 반드시 불법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지하경제는 ‘지상경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sup>21</sup> 하지만 체제이행기에 있는 국가에 있어서 지하경제가 중요한 이유는 앞서 설명한 지하경제의 순기능 보다는 그 역기능이 오히려 지상경제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며, 나날이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많은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 조직을 움직이는 거액의 마약 자금, 이익을 본 기업에서 정치가나 공무원에게 주는 정치 현금이나 뇌물, 해외 거래를 이용해 은폐된 기업의 이익, 개인 사업주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 까지 퍼져 있는 탈세 이 지하경제의 일면들이다. 이렇듯, ‘지하경제’는 분명 ‘어두운’ 측면에서 발생한 것임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지하경제는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지만 ‘지상’과의 경계선이 모호하고, 지하경제 자체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다.<sup>22</sup>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하경제의 정의는 ‘공적 기관에 보고되지 않은 경제’인데, 이는 행위주체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하경제의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세율이 높거나 각종규제가 심할 때, 제도적 장치가 미비할 때 지하경제가 발생한다. 둘째, 부패와 관련해서 관료나 마피아 등의 범죄 조직의 약탈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하경제가 발생한다.<sup>23</sup> 하지만 위와 같은 일반적인 지하경제의 발생원인은 러시아의 지하경제를 설명하는 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

러시아에서 지하경제가 발전하게 된 것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이 드러나면서 부족한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암시장이 형성되면서부터이다. 마피아의 성장과 궤를 같이하는 러시아에서의 지하경제는 사회주의가 붕괴하면서 더욱더 공고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Leo McCann의 분석에 의하면 경험적인 수준에서 러시아의 지하경제는 이미 그 언어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sup>24</sup> 그에 따르면 러시아가 이미 시장화 된 것은 사실이지만, 부분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러시아에게 문명화 되고, 발전된 자본주의 경제로의 전환이 아니라 산업부문의 약화와 바터 거래의 증가 등을 통해서 산업 전분야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왔다. 반면에 아직도

---

<sup>21</sup> Simon Johnson, "Why do firms hide? Bribes and unofficial activity after communism,"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76, 2000, p. 496

<sup>22</sup> 名東李二, 오영수 역, 지하경제의 정치경제학(서울: 좋은책, 1990), p. 23~24

<sup>23</sup> Simon Johnson, Op cit, p. 497 그에 따르면 러시아의 기업인들 중 90% 이상이 관료와 마피아에게 뇌물과 보호비를 건네주었다고 한다.

<sup>24</sup> Leo McCann, "The Informal Economy and The Informal State in Tatarstan, Russia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Vol. 20, No. 9, 2000

과거의 비효율적인 제도가 남아 있으며 부정적인 지나친 지하경제의 성장과 부패 및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즉 러시아는 비형식적인 법률과 독특한 조직적 형태의 혼합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실증 연구에 의하면 공산당과 명령 경제는 사라졌지만 서구식의 체제가 아직 그것을 대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러시아의 지하경제 규모에 대해서는 기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World Bank에서는 러시아의 지하경제 규모를 GDP대비 41.6% 규모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러시아 국가통계위원회는 그 수치를 22~25%로 발표했다. 또한 러시아 학자들은 그 비율이 35%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발표기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러시아의 지하경제규모가 비대하게 크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는 곧 국가 경제의 효율성이 낮을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하경제의 상당 부분을 마피아가 차지하고 있음으로 해서 러시아 마피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러시아 지하경제의 구조는 3단계로 구성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상층부에는 마피아와 관료들에 의한 범죄적 측면의 지하경제가 존재한다. 둘째, 일반적으로 경제환경에 따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하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행위주체들이 있다. 셋째, 합법적이지만 통계에 계산되지 않는 일반적 활동이 포함된다.<sup>25</sup>

러시아에서 지하경제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에 의한 공적 부문과 민간에 의한 사적 부문의 균열 심화로 인해서 상호간의 신뢰감이 저하된다. 이에 따라서 원활한 국가운영이 힘들어지게 된다. 둘째, 조세와 관련하여 지하경제로 인한 세수의 감소는 국가의 능력을 점점 더 약화시켜 사회 안전망 구축, 간접자본의 확보 등의 기본적인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하경제’에 있는 행위주체에 대한 과도한 조세부담은 그들까지 지하경제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하경제와 연관된 부패가 사회에 만연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사회의 확립이 힘들어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에서 지하경제는 그 상당부분이 마피아의 활동과 연관 되어 있다는 것이다.<sup>26</sup> 이는 체제전환국가 특히, 러시아에서의 지하경제는 규칙의 부재와 마피아라는 요소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국가보다도 큰 규모의 지하경제를 형성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곧 지하경제의 증가는 마피아 권력의 확대 이해할 수 있으며 지하경제가 관료와 그들과 유착된 마피아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다 준 것이다.<sup>27</sup>

---

<sup>25</sup> Mark Tomass, "Mafianomics: How Did Mob Entrepreneurs Infiltrate and Dominate the Russian Economy?"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32, No. 2, 1998, pp. 571~572

<sup>26</sup> Matthe Fleming, John Roman, "The Shadow Economy,"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3, No. 2, 2000, pp. 406~407

<sup>27</sup> Arel Cohen, "Crime Without Punishment," *Journal of Democracy*, Vol. 6, No. 2, 1995, pp.34~35

### 3. 부패

#### 1) 부패의 일반적 정의 및 원인

다른 여타의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용어처럼, 부패도 일관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공적 영역의 관점에서 부패는 ‘이익에 치중한 나머지 공권력을 오용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하면 관료가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적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시장중심적 관점에서는 관료제가 경제에 대하여 광범위한 조정자의 역할 수행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서 부패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외에도 제도적인 원인에 의한 정의, 권력 관계적 접근방법, 기능주의적 시각 등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sup>28</sup>

일반적인 부패의 원인으로는 제도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 사회 문화적인 측면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부패의 원인은 제도적, 관리적 결함에 의한 것이다. 즉,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또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기구들과 그 운영상의 문제들, 또는 이러한 것들의 예기치 않았던 부작용 등이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부패의 발생원인에 대한 설명은 관료가 공공행정조직에서 구조적 관행으로 정착화 되거나 내면화 된 병적 도둑관료제(kleptocracy)라는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부패의 원인은 부패가 사회문화적 소산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 같은 것이 바로 부패를 조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측면에서도 부패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즉, 이 관점에서 부패는 개인 행동의 결과로 인식된다. 부패의 원인을 행위에 참여한 개인들의 자질과 본성, 윤리에서 찾는 것이다.

#### 2) 러시아의 부패 현황

일반적으로 체제이행기에 있는 국가들은 규칙과 규범, 관습 등의 미비, 약한 국가, 사회 정치적 및 경제적 불확실성에 의해서 부패가 쉽게 발생하고 증가할 수 있다.<sup>29</sup>

위와 같은 요인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주의의 유산과 경제침체, 정치적 불안정, 미발달 되었거나 부적합한 사법체계, 국가기구의 비효율성, 약한 시민사회와 민주적 전통의 부패가 부패를 확산시킨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관료와 연관된 마피아 현상의 광범위성, 법원체계의 미비, 법인식의 부족, 개인에 앞서는 국가보호에 대한 정향, 법의 지배에 앞서는 행정지시의 뿌리깊은 관습들이 러시아에서 부패가 만연하고 주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런 결과로 러시아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sup>28</sup> 반부패특별위원회 편, 부패방지백서(서울: 반부패특별위원회, 2001), pp. 8~10

<sup>29</sup> Prateek Goorha, "Corruption: theory and evidence through economies in tran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부패지수에서 러시아는 2001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에서 조사대상 92개국 중 공동 79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러시아에서의 부패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병역기피 뇌물시장이 연간 8억 달러의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국방예산의 10%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IDEM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러시아 공무원들이 지난 한해 동안 뇌물로 받은 돈은 36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러시아 정부예산 수입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조사기관은 실제 뇌물액수는 조사에서 나타난 것의 3배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부패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비용의 측면에서 부패는 지하경제를 확산시켜 재정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 또한 시장경쟁의 약화에 따라서 효율성이 저하되며 러시아에서 한 해 200억 달러 정도의 세수원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더불어 경제적 부가 부패관료에게 전화되어 경제적 평등을 훼손시키며, 결정적으로 시민사회 발전의 기반이 되는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의 전반적인 불평등의 증가를 가져온다. 또한 법의 지배에 대한 믿음을 감소시킨다. 또한 부패의 증가는 마피아가 관료와 유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서 점점 더 그 유착은 긴밀해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회적 긴장감이 상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측면에서 부패는 소위 올리가르히들이 관료에게 행사할 수 있는 자원을 많이 획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보다는 소수를 위한 정책이 주가 되는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 4. 대응 방안

체제이행기의 러시아에서 마피아 현상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범죄 및 지하경제, 부패 등의 적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첫째, 우선 마피아와 부패 등에 관한 정확한 규모 및 활동 양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까지 러시아에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각 분야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분석이 기관마다 서로 상이하고, 일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러시아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지표는 그 신뢰성이 많은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 힘들다. 이에 더해서 돈세탁 등을 통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본을 감시하고 국가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CIS 공화국들과의 긴밀한 협조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마피아와 부패, 지하경제 등에 관한 위험성을 알리려는 노력과 함께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용인의 자세를 낮추어야 한다. 앞서서도 거론되었듯이 서방과는 달리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문화적인 바탕 위에서 시민사회가 항상 국가기관에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그런 유산이 타국에서는 불법적인 현상들에 대해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인식의 변화 없이는 어떠한 제도적인 노력도 그 결실을 맺기 힘들 것이다. 이를 위해서 러시아 정부는 시민사회의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는 NGO의 육성이나 지역중심의 자치모임, 경제적 협의 모임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셋째, 예방의 차원에서 위와 같은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정부통제의 강화 및 그에 따르는 법률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두마가 공무원 윤리강령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sup>30</sup> 또한 돈세탁방지법이 공식으로 발표된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마피아에 의한 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법적인 측면에서 현재까지도 많은 부분이 미비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1997년 새로 적용된 형법에 그 동안 빠져있었던 규제대상이 다수 포함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그와 연관된 회사, 은행, 금융, 보험 등 여러 분야에서 미비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

다섯째, 국제적 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러시아의 고유현상으로 보이는 마피아나 부패 및 지하경제 등 다양한 현상들이 국제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향적 자세에 따른 국제공조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이다.

#### IV. 결 론

아직까지 러시아는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과거의 영광으로 오늘날까지 ‘생존’해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혼돈의 시대를 보내고, ‘법의 독재’를 외치는 대통령이 국가재건을 부르짖지만 아직도 그들에게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 가장 안전한 길을 택했어야 할 사유화 정책은 완벽한 준비 없이 단기간에 이루어짐으로써 마피아라는 지배적인 행위자를 만들어 냈다. 그들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지상’과 ‘지하’를 장악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성숙하지 못한 러시아에서 마피아는 큰 견제를 받지 않고 그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다. 진정한 러시아의 발전을 위해서는 순기능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와 시민적 차원에서 위와 같은 마피아의 역할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참 고 문 헌

---

<sup>30</sup> The Moscow Times, May 14, 2002

V.D.안드리아노프, CIS시장연구회 역, 러시아 대외경제론(서울: 동명사, 1999)  
수잔 로즈 액커먼, 장동진 외 역, 부패와 정부(서울: 동명사, 1999)  
서재진 외, 사회주의 지배엘리트와 체제변화(서울: 생각의 나무, 1998)  
조한범,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사회상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1)  
名東李二, 오영수 역, 지하경제의 정치경제학(서울: 좋은책, 1990)  
이상안, 범죄경제학(서울: 박영사, 1999)  
홍완석 편, 21세기 러시아 정치와 국가전략(서울: 일신사, 2001)  
반부패 특별위원회 편, 부패방지백서(서울: 반부패 특별위원회, 2001)

James R. Richards,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Cybercrime, and Money Laundering* (NY: CRC Press, 2000)

Stephen Handelman, *Comrade Criminal: Russia's New Mafiya* (New Haven: Yale Univ. Press, 1995)

Annelis Anderson, "The Red Mafiya: A Legacy of Communism," in Edward P. Lazear, ed. *Economic Transition in Eastern Europe and Russia: Realities of Reform* (Stanford, Calif.: The Hoover Institution Press, 1995)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Russian Organized Crime* (Washington: CSIS, 1997)

#### 논문

조한범 외, "러시아의 계층변화와 체제이행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학적 분석- 신흥자본가 집단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Vol. 22, No. 4.

Stephen Handelman, "The Russian 'Mafiya'," *Foreign Affairs*, Vol. 73, No. 2.

Mark Galeotti, "Mafia: organized crime in Russia," *Jane's Intelligence Review*, Special Report, No. 10, 1996

Mark Tomass, "Mafianomics: How Did Mob Entrepreneurs Infiltrate and Dominate the Russian Economy?"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32, No. 2, 1998

Abraham Abramovsky, "Prosecuting the "Russian Mafia": Recent Russian Legislation and Increased Bilateral Cooperation May Provide the Means,"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7, No. 1, 1996

Stergios Skaperdas, "The political economy of organized crime: providing protection when the state does not," *Economics of Governance*, Vol. 2, 2001

Mitchell Orenstein, "Lawlessness from Above and Below: Economic Radicalism and Political Institution," *SAIA Review*, Vol. 18, No. 1, 1998

Simon Johnson, "Why do firms hide? Bribes and unofficial activity after communism,"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76, 2000

Leo McCann, “The Informal Economy and The Informal State in Tatarstan, Russia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Vol. 20, No. 9, 2000

Matthe Fleming, John Roman, “The Shadow Economy,”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3, No. 2, 2000

Prateek Goorha, “Corruption: theory and evidence through economies in tran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Vol. 27, No. 12, 2000

Arel Cohen, “Crime Without Punishment,” *Journal of Democracy*, Vol. 6, No. 2, 1995

기타

Newsweek, The Moscow Times, New York Times, Interfax News Agency

(검색은 <http://www.lexis.com/research>를 통해서 검색)